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말씀에 대한 눈물의 응답 (느 8:1-12)

The Response of Tears for the Word (Neh 8:1-12)

본문은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부흥 이야기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부흥을 꿈꿨습니다. 그러기에 성벽재건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많아진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The text refers to the revival story of the famous Nehemiah. Even though the wall of Jerusalem had been rebuilt, Nehemiah knew that the real revival should be achieved by hearing God's word. Nehemiah had dreamed of a truthful revival. So he was not completely satisfied with the rebuilt walls and residents in Jerusalem who were increasing. And therefore, he had all the people assemble in the square before the Water Gate to have the time to listen attentively to God's word.

1. 학사 에스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1절).

에스라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헌신한 사람으로, 유대교를 재건한 제2의 모세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먼저 준행하며,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에 에스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2. 부흥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3절).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 일어서서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마질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이상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 1:3). 성도에게 말씀을 읽는 일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며 응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9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물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눠 주었습니다(10절).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흥의 분명한 열매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주며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부흥은 새 시대를 가져오는 부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Ezra the scribe

"When the seventh month came and the Israelites had settled at the Gate. They told Ezra the scribe to bring out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which the Lord had commanded for Israel"(v. 1).

Ezra who was very intelligent was called the second Moses who had reconstructed Judaism and specifically devoted himself to study God's word. Ezra was determined to study and follow God's word on his own initiative, and firmly believed he should teach God's word to all the people. With the revival of Nehemiah's time, Ezra desire to fulfill his duties took on a wonderful role.

However, it was surprising that those who wanted to hear God's words from Ezra were Israelites. The fact that the people longed for God's word was just the beginning of the revival.

2. The scene of the revival

All the Israelites listened attentively to God's word with a yearning mind(v. 3). From daybreak to noon, all of them stood and listened to the Book of the Law. What was more, for more than a consecutive week in the feast of Tabernacles, they were devoted to read and listen to God's word every day.

As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s of this prophes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Rev 1:3). The fact that Christians read God's word is the beginning of all blessings and the beginning of a desirable change.

And when they listened to God's word, all the Israelites didn't just listen to it, but they raised their hands and enthusiastically answered with 'Amen and Amen'. The response of Amen means the action of which they recognize God's word, and the confession of which they obey God's word.

The Israelites listened to God's word and wept(v.9). It was the response of tears for God's word. These were tears of confession, thanks, and deep emotion. The people who listened to God's word and received God's grace were led to serve out their belongings to the people who had nothing as if their possessions didn't belong to them.(v. 10) It is the same as the Early Church in the Book of Acts. One of the clear fruits of revival is the fruit of love in which we look after each other.

My beloved Christians!

God's word is living and vigorous. Wherever God's word is heard, the work of healing, restoration, life, and revival will prosper. The revival of God's word will be a seed of revival that brings the new age. For your life and family, at your work, and in our church, I earnestly hope that the revival of God's word will be experienced in its truth and glory.

이웃사랑,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 교회 돕기
2011 사랑의 바자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
9월29일(목)-30(금), 서울교회

우리 교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2011 사랑의 바자가 9월 29일(목), 30일(금) 양일간 서울교회에서 열린다. 2011 사랑의 바자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바자"를 표어로 이웃 사랑의 실천과 아가페타운 건립,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 교회목표 중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힘쓴다. 또한 바자시작 전부터 진행되는 사랑나눔A+캠페인과 온라인 바자물을 통한 사랑의 우물파기 운동을 통하여 9월 한달간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다락방사역 리더 일일수련회

2011년 8월 26일(금) 10:00 ~ 15:00 / 본당

다락방사역 리더 일일수련회가 8월2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등록은 오전9시30분부터 시작하며 이날 박노철 목사는 "다락방 사역의 꿈"(고전 13:1-13)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유문건 목사는 "건강한 다락방을 세우는 7가지 원칙"을 주

제로 특강을 한다. 자녀 문제로 못 오는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을 위하여 김안성 목사와 김은숙 전도사가 별도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하여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금주의 여름수련회

신혼가정부 14(주)-15(월) · 청년1부 14(주)-16(화)
장로 수련회 15(월) · 청년2부 15(월)-17(수)

이번 주에도 여름수련회가 계속된다. 신혼가정부 수련회는 오늘부터 15일(월)까지 "결혼, 가정, 자녀"를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며, 청년1부 수련회는 오늘부터 16일(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를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된다. 내일 15일(월)부터 시작

되는 장로 수련회는 하루 일정으로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되며, 청년2부 수련회는 내일 15일(월)부터 시작하여 17일(수)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라"를 주제로 아가페타운에서 진행된다. 은혜가운데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

- 8월26일(금), 임우민 교수 초청 -

8월26일(금) 금요기도회는 자녀들의 개학 기도회를 가진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맞이하여 임우민 교수(백석예술대학 교수,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녀들을 위한 특별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9월5일(월)-11월13일(주일) 10주간

2011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은 9월5일(월) 개강하여 11월13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서울교회 열린프로그램은 성도와 이웃주민이 함께 좋은 강의도 듣고 신

앙생활에 도움도 되도록 준비되고 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한 과목 이상을 수강하여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기를 소원한다.

찾아가세요!

사무국에서는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 물건을 맡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찾아가지 않아 쌓여있는 물건들로 인해 사무국 업무에 지장이 있으며 물건의 분실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8월28일(주일)까지 성도님들이 맡겨놓은 물건을

찾아가시길 권고드리며 찾아가지 않은 물품의 경우에는 나눔의 집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찾아가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태에 대해서 사무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러 성도님들은 8월28일(주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5]

(문 13)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답) :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지어 입히심으로 피 흘림으로 죄를 가리우시는 대속의 원리가 설명된 것으로 보아(창 3:21) 아담과 하와는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창 3:15에서 여자의 후손(그리스도)이 뱀(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해 주심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견케 하심도 아담과 하와의 구원을 입증시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또한 그의 후손에게 짐승을 잡아 피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의 둘째 아들인 아벨은 제단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대속의 제사 제도를 시행케 되었습니다(창 4:4). 사실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직업을 따라 얻은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바치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물리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의 차이라기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렇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셨다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히 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가인이 바친 제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인의 피 흘림이 없는 채소는 아담의 제사장직 직분 수행에 흡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신앙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족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때는 한 가정 당 양 한 마리씩 죽여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후 제정된 속죄의 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양 한 마리를 죽여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이들이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대속적 구원 원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이 되고 적용이 되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광복절 특집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내일은 광복 66주년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광복절특집으로 제헌국회의 기도문을 신는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다. 1948년 5월 31일, 당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목사)이 기도했다. 이로서 제헌국회 제1차 회의록에는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이 제일 먼저 실려있다. (편집자 주)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통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제헌국회 개원식 장면

이승만 임시의장은 국회를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니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열린 프로그램 - 꼬꼬마 가베학교

♪ 쪽~쪽 쪽~쪽~♪ ~비가 오는데 어디가세요~꼬꼬마 가베학교 갑니다

소은희 집사(12교구)

추운겨울이 지나고 3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

오늘은 수아와 무엇을 할까? 이번 주에는 어떤 좋은 체험이 없을까? 고민하는 저에게 3월의 시작과 9월을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는 이 시기에 꼬꼬마 가베학교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좋은 놀이시설과 체험장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놀잇감과 놀이시설이 없던 제 어린 시절에는, 주일이 아니어도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놀던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가베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능력을 자유롭게 이끌어내게 도와준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10주간의 활동 속에는 주제학습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교회의 따뜻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꼬꼬마 가베학교는 이런 저의 엄마된 마음을 200% 충족시켜주는 곳입니다. 유아기 때부터 교

다. 수아에게도 그런 교회의 따뜻한 기억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험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목자되신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간다면 울곧게 잘 자라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딸 수아는 <꼬꼬마 가베 학교>를 늘 기억하고 벌써 기다립니다. 신기하게도 가베학교가 시작할 무렵이 되면 노래를 부릅니다. 수아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그 시간이 저도 기다려집니다. 비가와도 갑니다, 눈이 와도 갑니다, 바람 불어도 갑니다! 이런 행복한 부름에 많은 친구들과 새로운 이웃들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를 마치고

방글라데시의 아샤(소망)를 위하여

양정실 권사 (방글라데시기도 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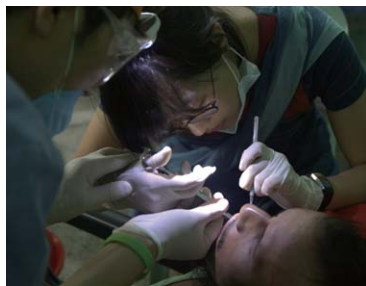


거리곳곳에 넘쳐나는 인파,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도로 한복판, 비좁은 차와 차사이 공간을 걸인들이 노크한다. 나는 지금 불쌍한 방글라데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몇 십년 전 우리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우리 팀은 가난한 마음의 빛을 이렇게 내려놓는다.

오랜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여 이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처소인 다카장로교회가 세워지던 날, 순례자에 실린 교회 모습과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기도팀의 감격은 더 없이 컸었다. 95%나 되는 무슬림국가에서 복음전도의 자유롭지 못한 이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힘든 일인가?

이종윤 원로목사님의 제자이신 스브로토 바로이 목사님께서서는 현지인으로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묵묵히 방글라데시의 초대교회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 훈련된 현지인 한명의 일꾼이 다수의 외국인 선교사보다 복음전파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우리는 현지인 리더가 많이 배출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때마다 김치신학세미나에 참석하셨던 G신학교 총장님께 약속헌금을 전해달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 팀도 함께 후원금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기뻐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무장된 선한 일꾼들이 이곳을 통해 많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갠지스 강 하구에 위치한 물의 나라가 무색하게 비소가 섞여 먹을 수 없는 물(끓이면 어느정도 날아간다고 함), 연신 땀을 쏟게하는 습한 무더위, 부실한 식사, 머릿이



와 음, 각종 피부질환과 질병에 시달리나 약조차 사 먹을 수 없고 기운 없는 민초들이 밀려든다. 선천성 기형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아이들도 보인다. 아침 일찍부터 밀려드는 환자들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 움직여도 일손이 부족하다. 진료기록지 는 동이 나고 작은 종이 가 처방전을 대신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교회로 자주 모여들다 보니 가뜩이나 예민해진 무슬림지도자들이 몹시 화가 나있더라고 바로이 목사님께서 귀찮게 주셨다.

교회건물 안 좁은 한켠에선 선풍기를 돌릴 수 없어 땀과 머리카락으로 뒤범벅이 된 미용팅의 묘기가 진행되며 각 진료과 의사선생님의 정성 담긴 진료를 받고, 목사님과 단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 약을 받아 돌아가는 뒷 모습을 본다.

다카엔 또 하나의 기도 골방이 있다. 어린영혼들과 조남해 선교사님이 계신 아샤 호스텔! 이른 아침부터 말끔히 정돈하고 팀을 기다리던 맑은 눈동자들과 마주하는 순간 낯설지 않은 이름들이 튀어나왔다.

실명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샬, 화상으로 고생하던 조이, 다리를 절단한 아픔이 있는 쇼집, 중학생이던 니샷, 로비울, 마하부블... 낯선 사람이 부르는 자기이름에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이내 한마음되어 찬양했다. 박종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의 열렬한 기도에 깜짝 놀랐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이자, 늘 기도해오던 방글라데시의 변화의 주역들이 많이 배출될 요람이란 확신이 들었다. 우리 서울교회의 헌금은 선교사님들의 사역후원과 교육기자재, 깨끗한 우물, 방역, 소독, 선천성기형을 수술하는 귀한 곳에 멋있게 심겨졌다.

우리의 단기 사역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선교에 더 깊은 기도와 후속 조치들이 요구되

는 것을 마음에 담는다. 선교기간동안 우리 앞서 행하고 위경에서 건지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 드린다. 또한 사역내내 우리를위해 쉽없이 기도해주신 박노철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뜨거운 열정과 깊은 영성으로 지도해 주신 박종민 목사님, 팀을 이끄신 단장 이강진 집사님을 비롯한 환상의 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 14일(주) 초대교회 예배설교, 서교동교회 창립116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한다. 16일(화) 서울교회에서 시무하셨던 목사님들의 예배를 받는다. 19일(금) 장로교일교단 다체제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
- 임명 : 12교구 오영숙1 권사 대한 신학 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 개업 : 2교구 이병우 성도(이종형 집사, 김남옥 권사 아들)아셀 커피 피자 전문점 '강남구 삼성동 130-5번지 010-9570-5611
- 교역자 휴가 : 박종민 목사 8월 17일(수)-23일(화), 주일제의 대행: 한상은 목사
- 주간식당봉사 : 마리아전도회(8.14) 에스더전도회(8.21)
- 금주의 식사 : 11교구故 백영희 권사 유족일동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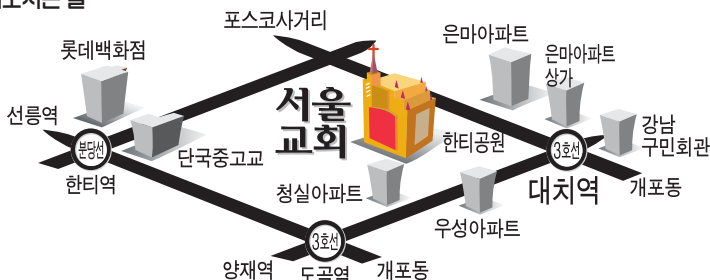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서울교회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2. 장로 수련회와 청년 1, 2부, 그리고 신혼가정부 수련회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3. 8월 26일에 있는 다락방 사역 리더 일일 수련회가 잘 준비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